

‘엄지척’ ‘폴더인사’ 유권자 눈길 잡기…로고송으로 발길 잡기

튀는 유세전

문 ‘블랙리스트 유세단’
안 ‘소매 견고 소몰이 발성’
홍준표 ‘서민 대통령’
유승민 ‘인천상륙작전’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의 스타트 총성이 울린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며 필승 각오를 불태웠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중앙당 선거대책위가 연 필승다짐대회에서는 ‘엄지척’ 유세전이 펼쳐졌다. 문 후보 기호인 ‘1번’을 강조하기 위해 선대위원들은 가수 홍진영의 ‘엄지 척’ 로고송에 맞춰 엄지를 들어 보이며 ‘문재인’을 연호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를 측면지원할 각종 유세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된 ‘블랙리스트 유세단’, 음·면 단위의 5일장을 찾아다니는 ‘장날 유세단’, 청년·여성 유세단 등을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인사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당의 상징인 연두빛 셔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유권자들과 인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건네자 안 후보는 이들의 어깨를 짊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와 함께 장병완 총관선대본부장, 최경환 비서실장, 김경진 홍보위원장 등은 허리를 90도 넘게 굽히는 폴더인사를 하며 “안철수, 국민이 이깁니다”를 연호했다.

최근 화제가 된 안 후보의 소몰이 발성 법도 어김없이 나왔다.

그는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누가 미래를 만들 지도자인지 선택해주십시오.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선택해주세요”라며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다.

이날 새벽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는 유세전을 폈다.

선거운동원들은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라고 쓴 빨강색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을 돌았고, 홍 후보도 특유의 스타일 없는 태도로 상인이 건넨 토마토 등 음식을 받아 먹었다.

홍 후보 측은 이와 함께 ‘홍찌자’라는 문구를 새긴 홍보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홍준표를 찍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 등

을 당사 등에 설치했다.

또한 청년들이 주축이 돼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유세단을 만들어 가동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경제 대통령’·‘안보 대통령’을 두 축으로 표상에 호소했다.

당의 상징인 하늘색 점퍼를 입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불과 13일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갔다”며 “오늘부터 22일 남았기 때문에 13일만에 수도권에서 일들을 하고 전국으로 간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살릴 대통령, 유승민이다”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샤샤샤를 개사해 “기호4번 유승민, 샤샤샤”라는 노래도 선보였다.

/이종행기자 galee@·연합뉴스

로고송 경쟁

문재인 ‘Cheer Up’
홍준표 ‘무조건’
안철수 ‘그대에게’
유승민 ‘고등어’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의 청각을 자극하는 각 당의 선거 ‘유세 로고송’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Cheer Up’, 베드 키즈 ‘깃방방이’, 인피니트 ‘내 꺼 하자’ 등 최신 가요와 DJ DOC의 ‘Run to you’, 코요태의 ‘순정’, 엄정화 ‘페스티발’ 등 1990년대 가요 등을 두루 활용해 전 세대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홍진영의 ‘엄지척’을,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에서 나미의 ‘영원한 친구’의 개사곡도 선보일 예정이다.

영남 유권자를 겨냥한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호남 유권자를 위한 김수희의 ‘남행열차’ 등 지역 맞춤형 노래와, CM 송인 ‘오로나민C’, ‘간 때문에 비행기 우리모두 매들리’ 등도 활용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신해철의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의 개사곡을 메인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동요 ‘땀다 땀다 비행기’와 당가를 락 버전 등으로 편곡한 5개 노래도 활용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트로트 곡 등 1~2곡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박상철의 ‘무조건’과 박원빈의 ‘앗!뜨거’를 비롯한 트로트부터 아이돌 그룹 마마무의 ‘음오아예’, 가수 하리의 ‘귀요미송’ 등 2030 세대에게 친숙한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응용한 8곡의 로고송을 준비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동요 ‘상어가족’과 트와이스의 ‘Cheer Up’, 노래조의 ‘고등어’ 등을 활용한 개사곡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세기의 재판’…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검, 공소 유지·유죄 판결 자신
박, 통치행위 전제 무죄 주장
22년만에 전 대통령 형사재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건 이후 2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재판에서도 검찰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안중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남겨 받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통해 법원의 1차 판단을 받긴 했지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최종 유죄 판단까지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이원석(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공소유지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따져 신빙성을 떨어



대통령 기록물 이관 개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실은 화물차가 기록관으로 들어서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뜨리며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전망이다. 통치행위의 일원이었다는 대전제를 깔고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체육 육성 등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된 공익사업이며,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금품을 받았는지 몰랐고, 최씨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는 중소기업의 민원 청취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지시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혐의도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내달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 첫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쟁점 정리나 향후 입증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공판준비기일이 2~3차례 열리면 본격적인 심리는 6월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차 결론을 내려면 집중 심리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일주일여 3회 이상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최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공렬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급)가 이끄는 형사합의50부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5·18 민주광장 대선 ‘핫플레이스’

각 당 선대위 출정식 갖고 호남 구애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이 ‘5·9 장미 대선’을 맞아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에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선대위, 국민의당 광주·전남 선대위, 정의당 광주·전남 선대위가 5·18 민주광장에서 잇따라 출정식을 열고 호남민심 구애에 나섰다.

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80년 5·18 당시 ‘금남로 1번지’인 전일빌딩에 헬기 기총소사 흔적이 드러나면서 37년간 미완의 역사가 남아 있는 5·18 진실 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호남 정탈전의 출정(出征) 장소로 꼽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980년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한데다 1987년 6·10항쟁과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지난해와 올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집회의 중심지였다는 점이 상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18 민주광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양강 구도로 치러진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민주통합당 선대위 출정식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울러 평상시 청년의 거리나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공연장,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집회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구도심 중심지여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점도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큰 만큼 이번 대선 출정식 장소로는 제격이라는 평가다. 광주시는 최근 이 일대를 도심광장 명소화사업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기업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사,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우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서양새마을금고 공고 제2017-1호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입찰물건 목록
 가. 광주시 남구 서동 241-2
 대지(199㎡), 3층건물(282.71㎡)
 최저예정가격(W481,566천원)
 나. 광주시 남구 양림동 93-26
 대지(168㎡), 2층건물(198.11㎡)
 최저예정가격(W420,172천원)

2. 입찰일시
 2017. 4. 26. (10:00 ~ 11:20)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문서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oyang)에서 확인.

☎ 문의 062-720-2871

서양새마을금고

행정직(정규직)직원 채용

꿈과 희망을 주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군	채용분야	인원	자격조건	비고
행정	행정직	0명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2017년 졸업자 포함)	[무대사항]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어학성적 TOEIC 5500이상, TOEFL 5.00이상, HSK 3급이상 중 1개 이상 보유자

접수기간 2017. 4. 18(화) ~ 4. 21(금) 16:00 까지

접수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무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직원채용공고 참조

동강대학교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두암동)